

기고

목사는 교우들의 ‘월급’을 먹고 산다?



양홍수필가

목사로 헌직에 있을 때였다. 교회에서 매주 발행하는 주보에 설교문을 실었다.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에게는 듣고 보면서 그 의미를 더욱 각인시켜 주기 위함이었다. 급한 일로 결석한 교우들에게는 가정으로 보내어 함께 사랑과 소식을 나누기 위함이었다. 때로는 전도지도로 사용되던 이 주보에 글을 정리해 올린다는 것은 바쁜 일정 속에서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글을 쓰다 보면 가끔 오자와 탈자가 생겨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 내가 쓴 글의 오자로 인해 모みを 느끼거나 실소를 금치 못했던 몇 가지 경험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굳은 의지로 생을 지탱해 간다”는 표현이 있었다. 어느 젊은 청년의 삶을 칭찬하기 위해 사용했던 글이었는데, 이 글의 ‘의지’가 ‘의자’로 바뀌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굳은 의자로 생을 지탱’하는 인생이

되어 버렸다. 두 단어의 차이는 확실히 하나 뿐이었지만 결국 현실에 적용하려 하지 않는 고집쟁이 같은 인상을 주는 비유적 표현이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오래전 이야기다. “목사는 교우들에게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로 “목사는 교우들의 얼굴을 먹고 산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주일 교회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슬퍼하는 기색이 있을 때, 또는 화 때문에 일그러진 표정을 짓고 있을 때, 그 얼굴을 보고 마음을 읽게 된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활자화되는 과정 중에 ‘얼굴’이 ‘월급’으로 둔갑을 했다. 그러니 ‘목사는 교우들의 월급을 먹고 산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해 버린 것이다.

그 글을 읽으신 분들의 반응은 다양했을 것이다. “젊은 목사가 솔직해서 좋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없진 않았겠지만, 대부분은 “실리주의자, 샅군 목사 같으니!”라는 반응을 보였을 거란 생각에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어질한 경험이었다. 본의 아니게 목사의 이미지를 흐려 놓은 것 같아 후배 목사들에게 지금까지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

또 한 번은 글의 제목을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정했다. 그것이 교회 사무실에서 타이핑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양심’이란 단어가 점 하나가 빠지면 ‘양심’이 되었다. 그러니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자’는 해괴한 제목의 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사랑을 전하는 목사가 ‘양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자’는 말을 하다니! 여하튼 이런 몇 가지 소중한 경험들은 오자의 묘미와 글의 소중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성역 40주년이 되는 때에는 남은 생을 ‘문서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우선 그동안 설교했던 글들을 부랴부랴 정리하고 경험을 모아 ‘소리 낼 수 있을 때 외쳐라’는 제목으로 설교집을 냈다. 초본을 교정하는 과정을 거쳐 수차례의 수정 후에 이제는 오자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책의 가장 뒷장에 소개된 이력을 보았다. 아뵐새! 아니나 다를까 여지없이 오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실수 정도가 아니라 걱정을 해야 할 만한 오자였다.

각 지방을 대표하는 지방회인 ‘노회’의 대표로서 총회에 참석한다는 뜻의 ‘총회 총대’가 ‘총회 총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원본을 확인해 보았다. 분명 ‘총대’인데... 사자공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교정자가 ‘총대’의 뜻을 몰라 ‘총재’로 바꾸었는지도 모르겠다. 총대와 총재. 자음 하나 차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한 감투를 썼던 사람이구나!’라고 했을 것이다.

우리 삶은 실수의 연속이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과 의지를 갖는다 한들 언제 어느 때건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이다. 때로는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별장게 상기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풍족한 것들이 우리 삶을 채워 주기도 한다.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우리는 대부분 성공한 인생이라는 감투를 씌워 준다.

그러나 사람의 일생이 어디 계획된 대로 모두 이루어지는가. 강단에서 설교할 글을 쓰면서 뜻하지 않게 불쑥 나오는 오자로 인해 때로는 행복을 맛보고, 때로는 부끄러움도 느껴 보고, 때로는 살아 온 인생 전체를 돌아 볼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가까이 실수 없는 치밀한 인생보다는 후자의 제마나 인생을 몇 번이라도 택할 것이다.

탈고 후에야 비로소 눈에 띄는 오자와 탈자는, 의도하지 않은 즐거움이다. 실수나 생의 일부요 빈틈없음도 생의 일부일 뿐이니, 오자로 인해 얼굴이 화끈거린다면 그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양심이 살아 있어 감사해야 할 일이다. 탈자로 인해 문장의 뜻이 왜곡되어 오해를 받는다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도록 다짐해야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니 또한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 글의 전체를 보지 않고 오자에 집중하는 독서란 또 얼마나 피곤할 것인가.

오늘도 어떤 오자가 나를 미소 짓게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꺼이 기쁨과 교훈을 찾는 행복한 삶이 되길 소망해 본다.

NGO 칼럼

광주의 오랜 역사와 문화 간직한 사적동



구용기 사적동문화재보존을위한시민모임 대표

광주정신과 역사가 깊은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최초의 근대공원인 ‘광주공원’, ‘사직공원’, ‘광주천’ 등의 생태자원이 널려 있는 사적동의 매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적동이 갖고 있는 매력 중 으뜸은 시대를 초월하여 불의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는 광주정신의 중심지로서의 사적동을 이야기할 수 있다.

성거산(광주공원)은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을 때, 당시 광주목사였던 권윤의 의병 창의를 구할만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에 항거하기 위해 기우만 의병장의 거병 거의가 있었던 의병부대 주둔지다. 구한말 호남지역 최고의 의병장이었던 김삼일, 심남일 의병장의 순국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일제는 민족적기말살과 항일 의지를 꺾기 위해 성거산을 훼손하고 신사를 세우고, 주변지역인 불로동, 호남동, 수기동 등에 일인 주거지를 형성하고 1917년에는 성거산 1만여 평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일인들의 위락시설로 이용했다.

이때부터 성거산은 본래의 이름을 잃고 광주공원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총독부는 광주공원 신사를 국적신사와 하여 관리하게 한다. 이후 1929년 11월 3일 신사참배에 강제동원된 광주일교 학생들과 일반학생, 일반상인들과의 물리적 마찰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1929년 11월 3일 강제동원되었던 광주지역 학생들이 울분을 삭히며 올라갔던 돌계단을 지금의 우리들은 그 역사와 의미를 망각한 채 밟고 있다.

이처럼 성거산(광주공원)은 일제침탈과 이에 항거했던 우리 조상들의 항일의 역사가 함께 깊은 곳이며, 4·19의 거인 신사참배에 강제동원된 광주일교 학생들과 추모비가 있으며 1980년 5·18 민중항쟁 당시에는 공원광장에서 총기교육 및 부대편제를 했던 장소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는 중앙로 서현교회 앞이 가장 치열한 민주항쟁지로 수많은 민주투사들의 피범벅이 스며들어 있다.

광주시민과 외지 방문객에게 자랑스러

운 광주정신과 역사를 알리기 위해 2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해 광주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적동에 광주역사와 정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빛고를 역사문화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실제로 사적동에는 광주공원, 사직공원, 광주천 등 생태적 자산 외에도 성거사지 5층 석탑, 광주향교, 광주학교역사의 중심이었으며 최초의 금융조합이 있었던 사마재터, 비석거리, 사직단, 양파정, 석서정 등 유적이 많다. 또 광주 3·1운동전거지였던 작은 정터와 큰 정터, 심남일의 병장 순국비, 관덕정, 광주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빛의 타워, 항일독립투사의 거점으로 쓰였던 최부처(최상환) 가옥, 쌍효문, 6월 민주항쟁의 전거지였던 서현교회, 5·18민중항쟁 시민군 편성지 등 나열하기 힘들만큼의 문화·역사 자원이 풍부하다.

풍부한 문화·역사자산과 생태적 자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이 절실한 가운데 사적동소재 마을기업 ‘꿈꾸는 거북이’는 아시아문화전당의 관공코스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과의 연계를 위해 자체적으로 ‘빛과 열이 깃든 의왕길’, ‘아리랑길’, ‘시와 문화가 있는 문화길’ 등 3

가지 코스로 사적동 둘레길을 개발했다. 또 주민들이 주축이 된 마을해설사 양성과 마을인문학 교실, 마을지 발간 등 다양한 마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마을해설사의 시나 구의 지원 없이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사전에 전화예약을 하면 탐방인원에 관계없이 상시 이용가능하다.

광주의 진산이 무등산이라면 성거산은 광주를 지키는 비보산이라 한다.

1187m의 무등산의 험한 정기가 60미터의 성거산에 가로 막혀 도심의 한복판에 좋은 기운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여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구전돼 온다.

성거산은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어 성구강(聖龜岡)이라고도 했다. 우리 선조들은 거북이를 성스러운 동물로 여겼기에 이 거북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목 부위에 성거사지오층석탑을 세웠다는 설화도 있다.

지금의 사라졌지만 윗곳바실, 아랫곳바실, 효령정려문, 성거사, 사마재, 한진 사택등은 이야기로만 내려오지만 지금도 이야기거리가 많은 동네이며, 광주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지켜보며 불의에 항거하는 광주정신을 간직한 동네가 사적동이다.

社說

국립대병원 감사 자리 정권의 전리품인가

전남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국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자리가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인사나 전직 관료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도 감사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해자 의원이 전국 13개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상임감사 임명 현황’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공공연한 비밀’이 확연히 드러난다. 13명 중 무려 12명이 정계 출신이나 전직 관료로 구성돼 있다.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는 병원의 회계가 올바른지, 정상적으로 업무가 이뤄지는지 등 정관 규정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따지는 막중한 자리다. 또 공공의료기관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기능까지 맡고 있다. 그럼에도, 회계 및 의료 계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사들을 앉혀 놓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10명은 새누리당을

비롯한 친 정권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공직개혁을 외쳐 왔지만 실상은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감사들의 연봉도 역대에 이르지 않으니 친 정권인사에 대한 보은임이 분명하다.

국립대병원은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중요 의료 인프라다. 따라서 예산이 공정하게 쓰이고,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상임감사를 해당 식견이 불충분한 친 정권 인사로 채워서는 되겠는가. 국립대 병원의 상임감사 자리가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금이라도 현격하게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교체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임용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의학이나 회계 관련 등 전문가 선임을 법에 명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적하다.

금호타이어 勞도 社도 한 발짝씩 물러서라

금호타이어 노사 분규가 노조의 전면파업에 이어 회사 측의 직장폐쇄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타이어 3사 중 유일하게 실적이 좋아진 넥센타이어는 23번째 무분규를 이어가고 있다.

만약 금호타이어의 파업이 더 길어 진다면 노사 합의가 이끌어 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회사가 현재 겪은 매출 손실에 비례해 더 늘어날 수 있다. 양측이 자존심만 내세운 채 교섭을 회피할 경우 회사 자체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영향도 더욱 커질 것이다.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겨우 정상화의 첫 걸음을 땀 금호타이어가 또 다시 파국을 초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노사가 한시바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파업과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그룹차원의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따라 노조 측도 한 발짝 물러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 않아도 중국산 저가 타이어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의 운명이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타이어 3사 중 유일하게 실적이 좋아진 넥센타이어는 23번째 무분규를 이어가고 있다.

만약 금호타이어의 파업이 더 길어 진다면 노사 합의가 이끌어 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회사가 현재 겪은 매출 손실에 비례해 더 늘어날 수 있다. 양측이 자존심만 내세운 채 교섭을 회피할 경우 회사 자체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영향도 더욱 커질 것이다.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겨우 정상화의 첫 걸음을 땀 금호타이어가 또 다시 파국을 초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노사가 한시바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파업과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그룹차원의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따라 노조 측도 한 발짝 물러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제품과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집안에서 근근이 생활하던 이들이 보던 당국의 보살핌을 받는 장면을 종종 TV에서 볼 수 있다. 집착 때문에 사물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 두는 것이다. 저장박중이라는 일종의 정신질환이다.

지난 4일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에서는 일본 작가 오타케 신로의 ‘몽 세리 : 버려진 오두막으로서의 자화상’을 선보이고 있다. 작고 허름한 나무 집의 벽면에는 머물러·페그를 등 잡동사니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 집안에 또 자전거 패타이, 빛바랜 잡지, 배터리, 공구 등 온갖 물건이 흩어져 있다.

‘몽 세리...’는 언뜻 저장강박증 환자의 집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화정보원을 대표하는 어엿한 작품이다. 작품명은 쓰나미에 휩쓸려 자취를 감춘, 작가가 즐겨 찾던 스내바의 이름이다. 지붕 위에 낡은 보트가 올려져 있는 것은 쓰나미의 흔적이다. 작가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추억이 깃든, 손때 묻은 물건들을 기억을 더듬기 위해 집을 만들었다. 버려진 폐품들이 자신의 역사와 기억을 간직하는 저장소가 됨으로써 작품으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작가의 기억법

각각의 사연을 적은 메모와 함께 담겨 있었다. 한 시민은 “광주항쟁 때 시민군들에게 밥을 퍼 주었던 주역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는 메모를 읽어 놓기도 했다.

“저장 매체”의 발달이 평창이라는 말로도 부족하지 않다. 우리는 예전의 플로피디스크를 거쳐 요즘엔 CD,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에 술한 정보를 저장한다. 그렇다면 즉, 이런 생각이 해보셨는지? 뇌리와 가슴 속에 담아 할 소중한 사적거 추억을 선원이 없으면 전혀 떠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윤영기 문화미디어부장 penfoot@

기고

가정을 인성교육 요람으로



이동범 미래교육포럼 공동대표

지난 7월21일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됐다.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법으로 정해 본격적인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기반과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윤리와 도덕을 교육의 첫 덕목으로 여기던 우리나라가 ‘사람됨’의 기준을 법으로 강제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인문문제가 심각했으면 법을 통해서 이를 처방하려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돌이켜보면 인성교육은 광복 이후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서 일관되게 강조돼 왔지만 실행이 없는 헛구호에 그친 느낌이 없지 않다. 교육이념 수준에서 선언적으로 법규를 만들고 실천하기 위해서 가족간 실천을 위한 노력이 일관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는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교대와 사범대에 인성교육 필수 개설 및 이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을 통해서도 인성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 올바른 실천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교대나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어떻게 배출할 것인지, 초·중·고 교사들의 인성교육 연수를 어떻게 실천할지,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할지 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

사람들은 흔히 학교에서 교사들만 인성교육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부모는 물론이고 사회인 모두가 인성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가정은 자녀에게 최초의 학교이며 사회로 나아가는 첫 출발지이자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을 배우고 가풍을 이어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기초교육 교사이기도 하다. 우선,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가족간의 대화시간을 늘려야 한다. ‘밥상머리 교

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을 대화하고 소통하는 일이다. 오늘 하루의 생활을 반성하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으로 문제점들을 풀어나가고 안아주면서 애로사항 등을 풀어나가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모자동행독서(母子同行讀書)’와 일기 쓰기도 빼놓을 수 없다. 부모와 자녀간에 동일한 책을 골라 함께 읽고 나서 그 책의 내용을 토론하는 것도 권장된다. 책의 주인공의 성격, 가장 재미있었던 점, 기쁘고 슬펐던 점, 본받을 점 등을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을 일기에 쓰도록 한다. 이렇게 하려면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스마트폰의 노예에서 벗어나 독서의 생활화로 자녀들의 심성을 길러주자는 것이다.

‘가훈(家訓)’을 정하여 실행하는 일도 중요하다. 가훈은 한 가정의 전통과 가풍을 이어가는 가정의 지침이다. 자녀들이 가훈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의지를 갖는다면 가족간 사랑은 물론 효의 정신이 몸에 배어 웃어른을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며,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게 될 것이다.

‘민주시민정신’을 실천하는 일도 중요하다. 존범, 질서, 친절, 예절 지키기를 실천함으로써 명랑사회와 민주사회의 조성을 다지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서로 나누면서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바른말, 고운말 사용을 생활화하고 웃는 얼굴, 부드러운 말씨, 따뜻한 손길로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점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인성교육은 식물의 광합성 작용과 같다. 햇빛과 바람, 공기가 적절히 작용해야 온전한 꽃과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과 인간관계가 모두 ‘인성교육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성교육은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것’이다. 그만큼 실제로 하는 ‘체험’이 중요하다.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거나 ‘웃음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등의 말은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다. 가정과 사회가 바로 서고, 부모와 어른들이 솔선수범 하면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은 이를 스스로 배우고 실천하게 된다.

인성교육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한국교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성교육 범시민 실천운동’에도 온 국민이 동참하여 실천적인 인성교육이 꽃피우기를 기대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체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편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체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